

III. 會社別 價格比較事例와 問題點

1. 가격비교사례

< 가격비교조건 >

- 대표적인 가입계층과 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상/인하되는 계층 선택
- 사례별로 담보조건이나 차량가액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
- 개발원 가격은 참조순보험요율을 예정기초율에 의해 영업보험료 환산

□ 대표적 가입계층

<사례 1> : 45세, 남자, 8년차 가입, 할인할증을 40%

	개발원	대형사	중·소형사
최 고	352,100	353,300 (100.3)	374,300 (106.3)
최 저		341,700 (97.0)	324,100 (92.0)
평 균		345,000 (98.0)	343,500 (97.6)

주) 괄호안은 개발원 대비 보험료 지수임(이하 동일)

<사례 2> : 30세, 여자, 5년차 가입, 할인할증을 60%

	개발원	대형사	중·소형사
최 고	409,600	394,600 (96.3)	398,000 (97.2)
최 저		328,100 (80.1)	364,500 (89.0)
평 균		376,900 (92.0)	381,000 (93.0)

<사례 3> : 25세, 남자, 3년차 가입, 할인할증을 80%

	개발원	대형사	중·소형사
최 고	548,500	602,300 (109.8)	607,700 (110.8)
최 저		510,700 (93.1)	474,100 (86.4)
평 균		546,000 (99.5)	537,900 (98.1)

보험료의 최대인하 계층

<사례 4> : 36세, 여자, 최초가입자

	개발원	대형사	중·소형사
최 고	1,697,900	1,801,700 (106.1)	1,873,400 (110.3)
최 저		1,632,800 (96.2)	1,406,900 (82.9)
평 균		1,758,600 (103.6)	1,730,900 (101.9)

보험료가 최대인상 계층

<사례 5> : 21세, 남자, 3년차 가입, 할인할증을 100%, 스포츠카

	개발원	대형사	중·소형사
최 고	1,120,400	2,111,400 (188.5)	1,951,200 (174.2)
최 저		1,235,500 (110.3)	1,247,100 (111.3)
평 균		1,495,200 (133.5)	1,474,100 (131.6)

□ 평 가

- 참조순보험료에 기초한 영업보험료 대비 평균 3~5% 정도 인하된 것으로 평가
 - 가입자의 대다수(55%)인 소형B의 보험료 인하 가속
 -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보험료 인하폭이 크게 나타남

 - 저연령 계층의 보험료 인상/ 최초 가입자 계층 보험료 인하 보도 불구하고 평균적 소폭 인상
 - 특히, 위험도가 높은 저연령층의 요율은 큰 폭 인상

 - 회사간 보험료 편차는 대형사/ 중소형사간 구분된 모습 시현
 - 대형사간은 주력가입자 계층의 인하경쟁이 두드러짐
 - 중소형사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층의 경쟁이 치열
 - 특히, 대형사들의 가격경쟁 돌입은 시장 잠식 초래

 - 전략집단(손해율이 낮은 집단)의 요율은 인하한 대신 손해율이 높은 집단은 큰 폭으로 인상한 모습

 - 최근 경쟁사의 가격보다 낮추려는 회사의 움직임
- ⇒ 요율 인하폭이 확대될 전망
- ⇒ 소비자 불신 팽배

2. 문제점

□ 선진 외국의 가격자유화 초기 양태 재현

- 보험회사간 가격격차 심화/ 실제 위험도(참조순보험료)와의 괴리 발생
-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회사의 모집조직 반발
- 낮은 가격으로의 가격 재산출/ 소비자 불만 가중/ 보험사 신뢰도 하락/
보험료의 안정성·합리성 훼손
- 과당 가격 경쟁의 악순환 조짐
- 동일회사에서 동일 위험(대형 사업장)에 대해 복수 가격구조로 과당 인하 발생/ 덤핑 우려

□ 대형사/중형사/소형사별 차별적 경영전략 미흡

-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 미흡
- 특히, 중·소형사의 경우 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전략만으로 대형사와의 경쟁은 회사손익의 불확실성 증폭
- 장기적으로 대형사 중심 과점체제 고착 우려/ 영업전반에 걸친 장기적 전략 모색 미흡
- 기초체력 부실한 소형사의 파산 우려/ 전 보험사의 체력 부실화 초래
(미국보험사 파산원인 1위 : 가격 부적정)

□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 보호에 문제점 노출

- 사고율이 높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미가입 상태(Affordability)
- 가격경쟁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시 이의 제어장치 미비
- 손해율이 낮은 일부 집단의 보험료를 타집단에 전가하는 역효과

- 회사간 보험료 비교가 어려워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곤란/ 정보의 비대칭성 증대

⇒ 시장의 투명성 감소

- 자유화의 취지를 벗어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향상 노력 미흡

□ 공정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: 가격결정 자율성의 최대 보장의 전제下

- 자유화의 역기능 규제장치/ 지도·지시에 의한 불투명한 규제 의존
- 잦은 요율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/ 담합적 가격인상에 대한 대안규제 부재
- 기초적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